한국건설감리협회 제6대 신임 회장

최종철 (주)종현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회장

"부실 공사 근절의 핵심은 '철저한 감리'이지요"

내년부터 공사비 100억원 이상(용역비 기준 1억 5,000만원) 공공공사에 책임감리수행평가제도가 전격 도입된다. 또 지난 2002년 월드컵경기장 건설에서와 같이 책임 감리와 CM의 연계가 이뤄지는 등 건설감리업계에 불어닥치는 변화의 바람이 거세다.

이처럼 감리업계의 달라진 여건과 환경에 따른 변화가 가시화하는 시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2004년. 한국건설감리협회는 최종철 종현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회장을 제6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건설감리협회는 건설공사의 부실 방지와 시설물의 품질 향상을 위해 도입된 책임감리제도 등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1994년 설립되었다.

"급변하는 건설 환경에서 감리업계가 대내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최 회장은 감리 업무 수행 능력의 수준 및 감리원의 자질을 높이고 이를 통해 성실 감리 및 감리업계의 전문화를 유도하는 등 감리업계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감리제도 및 감리 기술의 선진화를 위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감리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적정한 감리비 및 감리의 독립성 확보'라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최 회장은 합리적인 건설공사 감리 대가 기준 마련과 관련 제도상에서 감리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부처 및 관계 요로에 의견을 적극 개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택감리대상에서 제외된 13개 공종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 방안 마련도 추진 중이다.

사실 건설 감리 시장은 책임감리제도가 시행된 1994년 이후 1997년까지는 건설 경기의 호조로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다가 1999년 외환 위기 이후 급격한 수주 감소를 보였다. 최근 주택 경기의 호조로 다소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고는 있으나 국내 경기의 전반적인 침체로 아직까지 완전한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주상복합 건물 및 다중이용 시설물에 대한 합리적인 감리 방안 마련과 책임 감리 대상이 아닌 소규모 시설물에 대한 감리 확대 시행 등이 필요합니다."

최 회장은 감리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규모 건물에까지 감리를 확대 시행하는 정부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감리업계의 채산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동절기 감리 철수 조치 등을 꼽고 재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최 회장은 건설이 추구해야 할 사명으로 '시대 정신'을 꼽았다.

"우리의 삶이 녹아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내용들은 그 시대와 호흡을 같이 하는 공간적인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대를 담아내는 요체로서, 또한 한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예술미의 전형으로서 누구나 편안한 가운데 사고의 궤적을 넓힐 수 있도록 건설인의 무한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최 회장은 지난 1965년 산업 생산의 가장 기본적인 전초 기지로서 국가적인 인프라스트럭처 시설을 만들어낸다는 자긍심과 함께 예술적 가치를 부여하여 조형미를 완성해 낼 수 있는 건축에 보람과 사명감을 느낄 수 있다는 생각으로 대학에서 건축학을 전공, 건설업에 입문했다.

부실 공사 근절의 핵심은 '철저한 감리'라는 판단 아래 지난 1993년 (주)종현건축을 설립하고 업계에 첫발을 내딘 최 회장은 그동안 전주월드컵경기장 설계를 비롯, 농협종합유통센터, 시립동부병원, 대전 우편집중국청사 등 굵직굵직한 공사에서 감리를 맡아왔다. CJ

김희경 · 기자 · khk@cerik.re.kr